

모성과 부성, 인격적 사랑의 바탕

박은호 신부



한국틴스타

모성과 부성, 인격적 사랑의 바탕

박은호 신부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본 글은 2022년 한국틴스타 전국교사모임 및 재교육의
세 번째 세션 강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판1쇄 2022년 12월 20일
발행처 한국틴스타
주 소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영성센터 사무동 401호
홈페이지 <https://teenstar.or.kr>
문 의 02)727-2357~9 / 02)755-2629
팩 스 02)727-2243

표지그림 Bartholome Esteban Murillo, 〈성가정〉 일부

1. 인간 성숙의 여정: 몸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거치게 되는 자녀됨, 부부됨, 부모됨은 그저 생물학적인 성장 과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모상으로서의 인간이 사랑의 근본 소명을 살아가면서 인격적 성숙에 도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영혼과 육신의 단일체인 인간의 몸은 그러한 자녀됨, 부부됨, 부모됨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렇게 볼 때, 우리의 몸은 완성의 여정이기도 하다.

사실, 몸은 우리의 계획과 의지의 결과물이 아니다. 몸은 우리보다 앞서 있기에 우리는 몸을 물려 받았다. 우리 몸은 그렇게 인간의 근원적 ‘수용성’, ‘수동성’을 보여 준다. 현대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모든 것을 인간의 의지로 통제하려고 하지만, 우리 존재의 시작에는 그러한 ‘수동성’이 존재한다. 우리는 존재를 받았기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근원적 수동성을 받아들인다면, 이제 우리는 몸을 통해서 세상과 만나고 타인과 만난다. 사실, 자녀됨, 부부됨, 부모됨은 바로 관계다. 그렇게 우리 몸은 우리로 하여금 ‘나’를 뛰어 넘어 관계로 나아가도록, 그래서 사랑의 소명을 살아가도록 초대하고 있는 것이다.¹⁾

자녀됨의 의미는 무엇보다 ‘원가족’의 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받아들이는 것은 부모님에 대한 체험과 무관할 수 없다. 우리의 몸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부모와의 관계가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핵심이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²⁾

1) 호세 그라나도스, 「회칙 ‘인간 생명’에 나타난 사랑의 일치와 생명에 대한 개방성」, 『인격주의 생명윤리』, 2018년 8권 2호, 11쪽.

2) 같은 책, 12쪽.

그리고 그렇게 자녀됨의 의미를 받아들일 때, 나의 몸은 곧 성의 상이성 (sexual difference)을 말해 준다. 왜냐하면 나의 몸은 성의 상이성을 바탕으로 한 부모님의 결합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단순한 부모님의 결합으로 그치지 않는다. 나는 부모님에게서 비롯되었지만, 부모님을 넘어서는 것을 보여준다. 성의 상이성은 부모가 만든 것이 아니기에 그 자체로 이미 부모를 넘어서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나는 성의 상이성으로 개방된, 아버지와 어머니를 뛰어넘는 위대함에서 비롯된 존재이다. 성의 상이성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더 분명하게 체험된다. 자녀됨이 우리를 뛰어넘는 위대함으로 우리를 개방해 주었다면, 배우자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타자에게 우리를 개방한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동등한 상호 보완적 관계이며, 인격들의 친구로서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관계이다. 성의 상이성은 이와 같이 우리를 세상의 절대적 중심이 되지 않게 하면서 관계의 공간을 열어 준다. 3)

자녀됨과 부부됨을 통해서 우리 몸에 새겨진 관계의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은 풍성한 열매에 대한 개방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 부부는 자신들의 결합에서 자신들을 능가하는 자녀라는 열매를 얻게 된다. 부모됨은 부부가 자신들을 넘어서는 개방성의 체험이다. 4) “출산 능력은 몸의 자녀적 의미 안에 담긴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생명전달에 대한 개방성은 또 다른 우리 기원에 대한 개방성이다.” 5) 자녀됨의 의미는 부모의 자녀됨을 넘어 하느님의 자녀됨을 가리킨다. 자녀됨과 부부됨 그리고 부모됨은 결국 이 모든 개방성의 근원인 창조주를 가리킨다. 결국 모든 관계성은 우리 몸의 본래적 수용성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몸을 받았고, 이 몸에 의미를 부여해 준 누군가를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창조주에 대한 거부하는 몸에 대한 거부, 몸의 의미에 대한 거부이다. 6)

3) 같은 책, 12-13쪽.

4) 같은 책, 13쪽.

5) 같은 책, 20쪽.

6) 같은 책, 16쪽.

우리에게 몸을 선물로 주신 창조주를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을 창조주의 선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게 한다. 몸의 신학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몸이 ‘혼인적 의미’를 지녔다고 말한다. 우리의 몸은 창조주의 자유로운 선물로 받은 것이기에 다시금 누군가를 위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물은 자유롭게 주는 것이다. 우리 몸은 본능과 충동에 예속된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사랑의 선물로 내어 줄 수 있는 몸, 사랑의 능력을 지닌 몸이기에 ‘혼인적 의미’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다.⁷⁾

우리의 생명, 이 세상을 선물로 바라보는 시각은 현대 생태 문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찬미 받으소서 155항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우리 몸이 하느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는 것은 이 세상을 하느님의 선물이며 우리의 공동의 집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데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은 종종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피조물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몸을 받아들이며 돌보고 그 의미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참다운 인간 생태론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원죄를 통해 이러한 선물의 시각을 잃어버렸다. 선물의 시각을 잃어버릴 때, 이 세상은 어떤 의미도 가치도 없는, 그저 착취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물질에 불과한 것이 되며, 인간이라는 존재 역시 맹목적인 진화의 결과에 그치고 말 것이다.

2. 새 생명의 선물

7) 참조: 칼 A. 앤더슨·호세 그라나도스, 『사랑이 부르시다』, 이순·박문수 옮김, 사람과 사랑, 98-99쪽

선물의 시각은 이 세상의 역사가 선물에서 선물로 이어지는 질서임을 알아보게 한다. 결국, 부부가 서로에게 자신을 선물로 내어 주는 부부 행위를 통해서 부부는 자신들을 넘어서는 위대함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된다. 교회는 부부는 “서로에게 자신을 주면서도 자신들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인간의 탄생에 ‘재생산’(reproduction)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재생산은 동일한 것을 반복해서 생산해내는 것을 연상시키지만, 그 안에서 태어나는 인간의 존엄성과 유일무이성이 표현되지 않는다. 그래서 재생산보다는 출산(procreation)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선물로서 서로를 받았을 때 서로 잡힌 놀라움에 적극적으로 응답한 최상의 결과이다. 같은 이유로 ‘출산’(procreation)은 ‘재생산’(reproduction)보다 생식력을 더욱 적절히 표현하는 말이다.⁸⁾

인간 생명의 시작은 그저 또 다른 생물학적 역사의 시작에 머물지 않는다. procreation은 새롭게 시작되는 하느님 모상의 유일무이한 영혼의 역사를 잘 표현해 준다. 인간의 탄생은 분명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인격체의 존엄성에 적합한 탄생은 바로 부부 사랑의 열매로서 태어나는 것이다.

자녀들은 부부애의 살아있는 표상이고 부부 일치와 영원한 징표이며, 아버지 와 어머니라는 그들 존재의 생생하고 불가분한 종합입니다. (가정 공동체 14항)

인간이 부부 사랑의 열매라는 것은 다시금 인간은 그저 자연의 법칙의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두 인격체가 서로에게 자유롭게 자신을 내어 준 ‘증여의 결과’임을 말해 준다. 인간은 증여의 결과이며 증여의 결과로 태어나야 한다.

8) 같은 책, 106쪽.

3. 부모됨과 관련된 윤리 문제 : 피임과 보조 생식술

인간이 증여의 결과로 태어나야 한다는 사실은 출산과 관련된 특별한 생명윤리적 문제를 성찰하게 하는데 바로 피임과 보조 생식술의 문제이다. 바오로 6세의 회칙인 ‘인간 생명’의 12항은 “실제로 그 내밀한 구조를 통하여 부부 행위는 남편과 아내를 지극히 굳건한 유대로 결합시키며, 남자와 여자의 존재 안에 새겨진 법칙에 따라 그들이 새로운 생명을 낳게 합니다”라고 말한다. 부부의 인격적인 일치와 인간의 출산이 가지고 있는 불가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현대 사회는 피임과 보조 생식술과 같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일치와 출산의 의미를 분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피임과 보조 생식술로 일치와 출산의 의미가 분리될 때, 인간의 출산이 가진 인간적 의미가 사라지며, 남녀의 사랑이 가진 고유한 특성도 상실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출산은 남녀의 정신적 사랑을 통해서 그 인간적인 특성을 얻게 되고, 혼인한 남녀의 정신적 사랑은 새 생명의 탄생을 통해서 그 특성을 얻기 때문이다.⁹⁾

일치의 의미와 출산의 의미는 이와 같이 서로를 통해서 그 온전한 의미를 획득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분리될 경우, 어느 하나도 온전할 수 없으며, 부부 행위는 본래적 의미와는 상관 없는 전혀 다른 행위가 되어 버린다. 피임은 결국, 우리 몸이 자녀됨, 부부됨, 부모됨의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가 되며, 결과적으로는 그 의미의 원천이신 하느님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부부가 하느님과 맺는 관계에 피임이 미치는 악영향은 연이어 이중의 결과

9) cfr. M. Rhonheimer, *Ethics of procreation & the defense of human life*,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2010, p.77.

를 초래한다. 가장 먼저 피임이 손상시키는 것은 상대방이 지닌 ‘이마고테’로서의 절대적 존엄성을 인식하는 능력이다. 더욱이 자기 증여는 창조주의 손에서 이미 자신을 받아들인 것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피임법을 사용하는 부부는 서로에게 자신을 충분히 내어 줄 수가 없게 된다. [...] 일종의 연쇄반응으로, 출산의 수용성을 거부하는 것은 부부가 성적 만족의 욕구에 굴복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¹⁰⁾

사실 “인간 몸은 그저 성적 특성에 반응하는 운동장(영역)이 아니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과 위격의 표현 수단이기도 한데, 그 위격은 ‘몸의 언어’를 통해 자기 자신을 밝혀”¹¹⁾주어야 한다. 그러나, 피임을 통해 몸은 일종의 ‘조작 대상’이 되며, 인격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충동에 예속된 것으로 여겨진다. 몸과 창조주의 관계가 부정되며, 몸과 인격의 결합도 부정된다. 결국 피임을 통해 자신의 몸과 하나가 되지 못한 남자와 여자의 부부 행위 역시 ‘한 몸’에 이를 수 없는 것이다.¹²⁾

이에 비해서 자연출산조절법(NFP)은 부부 행위의 그 두 가지 의미를 보존하면서, 몸의 의미를 존중하는 태도를 표현한다. 우리는 자연출산조절법을 자연피임으로, 다른 피임 방식들을 인공 피임으로 이해하는데 익숙해져 있지만, 임신을 피하기 위한 서로 다른 방식을 말하지 않는다. 피임과 NFP는 인간에 대한, 그리고 인간의 성에 대한 전혀 다른 이해를 함축하고 있다. 피임이 인간의 성적 충동을 헤어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충동으로 경험하게 만들면서 자신들의 성적 행위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다면, NFP는 성적 충동을 다스릴 수 있는 것으로 바라보게 하며 자신들의 성적 행위를 변화시켜 부부 행위가 서로에 대한 전적인 자기 증여라는 부부 사랑의 핵심적 진리를 보존하는 것이다.¹³⁾

10) 칼 A. 앤더슨·호세 그라나도스, 앞의 책, 238쪽.

11) 미하엘 발트슈타인 엮음, 『요한 바오로 2세의 몸의 신학』, 이동호 옮김,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5, 750쪽.

12) 호세 그라나도스, 앞의 책, 17-18쪽.

13) 칼 A. 앤더슨·호세 그라나도스, 앞의 책, 239-240쪽.

교회는 시험관 시술과 같은 보조 생식술 역시 반대하는데, 보조 생식술의 경우는 부부가 자녀를 자신을 넘어선 선물로 받아들이는 대신, 자신들의 계획과 결정에 종속된 결과물로 받아들이게 만든다. 결국 시험관 수정과 같은 기술적인 개입을 통해서 부부는 자신들을 자녀의 유일한 원천으로 생각하게 되고, 자녀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보조 생식술과 같은 기술적 해결책들은 불임의 고통을 치유하기 보다 그 고통을 더 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¹⁴⁾

4. 부모됨의 인격적 의미

우리가 부모 됨의 의미를 실제로 자녀를 낳는 것에서만 찾게 된다면, 보조 생식술과 같은 기술적인 수단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인격체이기에 부모가 된다는 것은 그저 자녀를 낳는다는 생물학적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생식 능력과 부모 됨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인간은 인격이기 때문에, 부모가 된다는 자연적인 사실은 더 깊은 의미, 즉 단순히 생물학적 의미가 아닌 인격적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사실은 필연적으로 인격의 내면에 깊은 울림을 주는 바, 부모됨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러한 울림을 말하는 것이다. 인간의 부모 됨에는 결혼과 부부 관계에 대한 의식적, 자발적 선택의 전 과정이 함축되어 있다.¹⁵⁾

그런데, 이러한 부모됨에 있어서 모성과 부성은 서로 다른 과정을 통해서 표현된다. 남성은 자녀의 출산을 여성보다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부성을 얻기 위해서 더 의식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요한 바오로 2세는

14) 같은 책, 229-230쪽.

15)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사랑과 책임』, 김울 옮김, 누멘, 2016년, 293쪽.

남자는 여성의 모성을 보고 자신의 부성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¹⁶⁾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아버지는 저절로 되기 보다는 만들어집니다. 단순히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돌보겠다는 책임감을 느껴야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린이들은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처럼 보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아버지의 마음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러한 가르침은 부모가 된다는 것의 정신적 의미를 밝혀준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녀의 생명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을 포함하고 있다. 자녀의 양육은 온갖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이루어진다.

생명의 전달자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인격이기 때문에, 부성과 모성의 의미는 훨씬 깊을 수 밖에 없다. 인격들의 세계에서 부성과 모성은 일종의 정신적 완전성의 표시로서, 정신적 의미의 '출산'의 능력, 다시 말해 영혼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¹⁷⁾

이러한 부모 됨의 정신적 의미는 부모됨이 그저 결혼을 하고 실제로 자녀를 낳은 이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말해 준다. 정신적 부모됨의 실현은 타인의 인격적 성장에 도움을 주면서 실현되는 것으로서 하나의 '모범'을 뜻한다. 우리는 그러한 모범을 아버지와 어머니 뿐만 아니라, 학교의 선생님,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 등에서 발견한다. 정신적 부모됨은 그러한 면에서 인격의 내적 성숙의 표시가 되며, 결과적으로는 모든 인간이 혼인 생활을 넘어 추구해야 할 소명이 된다. 그런 면에서 모성과 부성을 평가절하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발전을 거스르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¹⁸⁾

16) 「여성의 존엄」, 18항

17)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위의 책, 334쪽.

5. 가정의 중요성

결국 이러한 남녀의 사랑과 부모됨을 통해서 가정이 형성된다는 사실은 가정이 사회의 기본 세포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준다. 왜냐하면 가정은 한 인간이 사회 안에서 맺게 될 관계를 배우는 기초 학교가 되는 것인데, 그 가정은 바로 남자와 여자의 인격적 친교의 논리 위에 세워지기 때문이다.

혼인을 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일치 안에서 서로를 서로에게 주고 받을 때에, 자기를 아낌 없이 내어 주는 논리는 그들 생활의 한 부분이 됩니다. [...] 이러한 친교의 논리 위에 세워진 인격의 친교는 부모의 친교가 됩니다. (가정 교서 11항)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마다 주는 사랑 뿐만 아니라 한 생명의 원천, 환대하는 동지, 가정의 기초로 여겨지는 부부간의 사랑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기쁨, 172항)

사회의 모든 관계는 인간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각자의 인격적 존엄성이 존중되는 이러한 인격적 친교를 바탕으로 할 때 온전히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관계의 바탕은 현대 사회처럼 공리주의와 개인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더더욱 요구된다. 인간의 성과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생명 윤리적인 문제들은 결국 인격의 존엄성을 간과하고 인간을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시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정은 한 인간을 그저 그가 인격체라는 이유만으로 환대하고 존중하며 그가 어려움에 처하면 처할수록 더욱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핀다.¹⁸⁾ 그리고 이러한 가정의 체험은 신앙의 관점에서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가정의 친교에 대한 긍정적 체험은 일상생활에서의 성화와 신비로운 성장의 참된 길이며, 하느님과 내밀한 일치를 이루는 수단이 됩니다. (사랑의 기쁨, 316항)

18) 같은 책, 335-336쪽.

19) 「생명의 복음」, 92항.

우리의 몸은 관계의 기반이며, 몸을 수용하는 것은 원가족의 체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결국 우리가 삶에서 체험했던 모성과 부성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타인과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는 바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Teen STAR